

## 객관적 강점이 존재하는 경우의 법정경합: 관찰 불가능한 성공보수 계약을 고려하는 경우\*

강 판 상\*\* · 이 동 우\*\*\*

### 논 문 초 록

본 논문은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이 존재하는 소송상황에서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여부가 성공보수하에서 소송인들의 의사결정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이와 같은 소송상황에서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해, 성공보수와 법률비용보험하에서 소송의 주요 결과들을 비교해 본다. 먼저 성공보수하에서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가 이루어지면 성공보수 계약 및 총 노력수준이 감소한다. 또한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로 인해 소송인들은 더 큰 기대보수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원고 측 변호인은 더 작은 기대보수를 얻게 된다. 다음으로 성공보수와 법률비용보험의 비교 결과, 경우에 따라 원고는 성공보수를 활용함으로써 법률비용보험을 활용하는 경우보다 크거나 작은 기대보수를 얻을 수 있으나, 소송인들의 총 노력수준은 성공보수하에서 항상 낮아진다.

핵심 주제어: 객관적 강점, 성공보수, 법률비용보험, 계약정보 공시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D72, K41

투고 일자: 2020. 7. 13. 심사 및 수정 일자: 2020. 10. 11. 게재 확정 일자: 2020. 10. 30.

\* 본 논문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BK21플러스 사업(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형)으로 지원된 연구임(관리번호 21B20130000013). 본 논문의 개선을 위해 유익한 제안과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두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1저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BK21플러스 박사후과정 연구원, e-mail: vonpansang@gmail.com

\*\*\* 교신저자, 중국 Southwestern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경제대학 조교수, e-mail: dwlee05@gmail.com

## I. 서 론

갈등상황에 있는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갈등조정을 위한 최후 수단으로써 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소송에 참여하는 소송인들은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지불해야 하는 소송관련 비용으로는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 비용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변호사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소송으로 인해 초래되는 심리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원고는 소송의 제기로 인해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된다.

개인이 기업 또는 특정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경우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면, 개인에 해당하는 원고는 기업에 해당하는 피고에 비해 재정상황이 열악한 경우가 많이 있다. 해당 경우 원고는 소송으로 인해 초래되는 금전적·심리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소송의 제기를 포기하거나, 피고 측이 제시한 열악한 합의조건을 수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원고의 소송제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실행되고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에서는 원고가 승소할 경우에만 배상금의 일정 비율만큼을 변호인에게 보수로 지불하는 성공보수(contingent fee)가 활용되고 있다. 반면 유럽에서는 무분별한 소송의 제기를 초래한다는 비판으로 인해 성공보수를 금지하고 있는 대신 법률비용보험(legal expenses insurance)을 활용하고 있다.<sup>1)</sup> 법률비용보험을 활용하는 유럽 국가들에서는 성공보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변호인에게 시간당 보수를 지불하게 되며, 원고는 법률비용보험을 사전에 구매해 이 비용을 마련하게 된다.

위의 두 제도와 관련해 민사소송 시 한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소송인들을 위한 법률비용보험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 수임계약과 관련해 성공보수를 인정하지 않고 착수금(고정보수)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성공보수와 착수금이 혼합된 형태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다.<sup>2)</sup> 최근까지도 민사소송 시 성공보수의 허용

1) 법률비용보험 대신 성공보수와 유사한 조건부보수(conditional fee)를 사용하는 유럽 국가로는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가 있다(박성훈·이명훈, 2011a).

2) 한국의 경우 형사소송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5년 7월 이후 성공보수 약정을 금지하고 있다(대법원 2015다200111).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아직까지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명확한 법률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여부와 관련해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성공보수와 법률비용보험의 장단점 및 성공보수의 양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원고가 성공보수를 활용하는 민사소송의 사례들에서는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한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판 변호사들의 높은 수임료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변호사들의 수임료가 지나치게 높은 원인 중 하나가 수임료 또는 성공보수 계약이 영업 비밀에 해당되어 공시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최근 정부법무공단의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료를 공개하도록 한 판결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판결근거로 제시하며 변호사 수임료의 공시를 유도하고 있다(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 2016누47750). 이 같은 논의들을 고려해 볼 때,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의 관찰가능 또는 공시여부가 성공보수하에서 소송인들의 의사결정 및 소송의 결과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안들을 고려해 본 논문에서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원고의 소송제기를 지원하기 위한 두 제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논의들을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소송인들이 객관적 강점(the objective merits of the case)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공보수하에서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없는 경우, 소송인 및 대리인들의 의사결정을 경합이론(contest)을 활용해 분석한다. 또한 성공보수하에서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소송의 결과들(litigation outcomes)을 비교해 봄으로써,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여부가 소송의 결과들에 주는 영향에 대해 논의해 본다. 둘째, 소송인들이 객관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없는 경우, 성공보수하에서 소송의 결과들을 법률비용보험하에서의 결과들과 비교해 본다.

소송에서는 소송인들의 부, 과실비율, 그리고 객관적 강점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소송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 중 객관적 강점이란 소송 전 각 소송인이 갖는 유리함 또는 불리함을 의미한다.<sup>3)</sup> 예를 들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사고의 유형에 따라 소송 전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이 비율에 따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당사자들 간

3) 소송상황에서 객관적 강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강판상·이동우(2020)를 참조하시오.

치열한 법정공방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상해관련 형사재판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합의결과가 형사양형을 낮출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 전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피고에 비해 유리함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예들에서 볼 수 있듯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은 소송 시 소송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을 고려해 두 제도하에서 소송인들의 의사결정을 분석해본다.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을 고려해 성공보수하에서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 여부가 소송의 결과들에 주는 영향과, 성공보수와 법률비용보험하에서 소송의 결과들을 비교한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공보수하에서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가 이루어지면 원고의 성공보수 계약, 그리고 소송 당사자들이 지출하는 총 노력수준이 감소한다. 둘째,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가 이루어지면 소송인들은 더 큰 기대보수를 얻게 되는 반면, 원고 측 변호인은 더 작은 기대보수를 얻게 된다. 셋째, 성공보수 활용 시 원고의 기대보수는 경우에 따라 법률비용보험 활용 시의 기대보수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으나, 소송 당사자들이 지출하는 총 노력수준은 성공보수하에서 항상 낮게 된다.

마지막으로 향후 논의의 전개를 위해 민사소송의 특성을 반영해 성공보수와 법률비용보험을 비교한 대표적인 연구들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Baik and Kim(2007a, 2007b)은 원고가 더 큰 기대보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려면 법률비용보험을, 그리고 총 소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성공보수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함을 보였다. 또한 Friehe(2010)는 피고의 과실비율을 반영해 두 제도를 비교하였으며, 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위의 결과가 성립하거나 또는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강관상·이동우(2020)는 소송인들이 보유한 객관적 강점을 반영해 두 제도를 비교하였으며, 객관적 강점 및 최종 판결 시 객관적 강점의 반영정도에 따라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성립하거나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성공보수와 법률비용보험을 비교한 선행연구들의 주요 결과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선행연구

경합이론은 주어진 상(prize) 또는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를 획득하기 위해

경기자들이 회수 불가능(irreversible)한 노력비용을 투입하며 서로 경합하는 상황을 분석하는 이론이다. 소송의 경우도 원고와 피고가 배상금을 받거나 지불하지 않기 위해 소송비용을 투입하며 법정에서 경합하게 되므로, 경합상황의 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경합이론을 활용해 소송상황에서 소송인들의 전략적인 비용지출을 분석한 Katz (1988)의 연구 이래로 법정경합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먼저 미국식 및 영국식 소송비용 부담원칙(American fee-shifting rule and English rule)하에서 소송인들의 의사결정 및 합의(settlement)결정을 분석한 연구로는 Farmer and Pecorino (1999), Osório and Luppi (2019)가 있다. 또한 법정경합을 동시게임과 순차게임으로 구분해 각 게임하에서 소송인들의 의사결정을 분석한 연구로는 Hirshleifer and Osborne (2001)이 있다.

반면 소송상황에서는 소송인들이 직접 소송에 참여해 노력수준을 지출하지 않고 변호인에게 노력수준을 지출할 권한을 위임하게 되므로, 주인-대리인 관계를 모형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합상황에서 경기자들의 권한위임 결정 및 주인-대리인 관계하에서 이루어지는 대리인 계약 결정에 관한 연구로는 Baik and Kim (1997), Wärneryd (2000), Schoonbeek (2002, 2007, 2017), Baik (2007), Baik and Lee (2013), Baik and Kim (2014) 등이 있다. 또한 소송상황에서 일어나는 변호인 고용, 성공보수 계약, 그리고 노력수준 결정을 고려한 연구들로는 Baik and Kim (2007a, 2007b), Baik (2008), 박성훈·이명훈(2009, 2010, 2011a, 2011b), Friehe (2010), Park and Lee (2019), 강판상·이동우(2020) 등이 있다.

다음으로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개인의 소송제기를 지원하기 위한 현실의 두 제도, 즉, 성공보수와 법률비용보험이 소송상황에서 소송인들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로는 Gravelle and Waterson (1993), Emons (2000), Heyes et al. (2004), Emons and Garoupa (2006), Emons and Fluet (2016)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소송을 포함한 경합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기자들의 사적정보 공시(private information disclosure)는 경기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경합상황에서 일어나는 경기자들의 사적정보 공시결정 및 사적정보 공시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로는 Yildirim (2005), Gill (2008), Kovenock et al. (2015) 등이 있다.

본 논문은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을 고려해 성공보수와 법률비용보험하에서 소

송 당사자들의 성공보수 계약 및 노력수준 결정을 분석한 점에서 강판상·이동우(2020)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강판상·이동우(2020)에서는 성공보수하에서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있는 경우만을 고려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반면 본 논문에서는 성공보수하에서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해 성공보수 계약 및 노력수준 결정을 분석한 점에서 강판상·이동우(2020)와 차이가 있다.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성공보수 계약이 영업 비밀 등의 이유로 공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분석은 성공보수하에서 소송인들의 의사결정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이해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여부에 따른 소송의 결과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소송비용 절감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성공보수 계약 공시의 효과를 분석한 점은, 본 논문과 소송을 다룬 위 연구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생각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을 고려한 법정경합 모형을 설정한다. 제Ⅲ장에서는 성공보수하에서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없는 경우, 성공보수 계약 결정 및 노력수준 결정을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의 관찰 가능 여부에 따른 소송의 결과들을 비교해,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여부가 소송의 결과들에 주는 영향을 살펴본다. 제Ⅴ장에서는 원고가 법률비용보험을 활용하는 경우를 분석한 뒤, 원고의 기대보수와 총 소송비용의 관점에서 성공보수와 법률비용보험을 비교해 본다. 제Ⅵ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 Ⅱ. 기본 모형

주어진 배상금을 얻기 위해 위험중립적인 원고와 피고가 각각 위험중립적인 변호인을 고용해 소송에 참여하는 상황을 고려하자. 논의의 전개를 위해 원고를 소송인 1, 피고를 소송인 2, 그리고 원고와 피고 측 변호인을 각각 대리인 1과 대리인 2로 나타내기로 한다. 소송인들이 배상금에 부여하는 가치는  $v(v > 0)$ 로 동일하며 이 같은 사실은 소송인들에게 알려져 있다.<sup>4)</sup>

4)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반면, 피고는 이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반론을 제기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모두 배상금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소송인  $i(i = 1, 2)$ 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i(i = 1, 2)$ 는 소송인을 대신해 소송에 참여해 노력수준  $x_i(x_i \geq 0)$ 를 지출하게 되며, 이는 각 소송인의 승소확률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한편 소송과정에서는 대리인들의 노력수준과는 독립적으로 소송인들이 보유한 객관적 강점 또한 각 소송인이 승소할 확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소송인 1이 보유한 객관적 강점을  $m$ , 소송인 2가 보유한 객관적 강점을  $1 - m$ 으로 나타내자. 단,  $0 \leq m \leq 1$ .<sup>5)</sup>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과 대리인들이 소송에 참여해 지출하게 되는 노력수준을 함께 고려한 각 소송인의 승소확률함수는 다음과 같다.<sup>6) 7)</sup>

$$\begin{aligned} p_1 &= \theta m + (1 - \theta) \left( \frac{x_1}{x_1 + x_2} \right), \\ p_2 &= \theta(1 - m) + (1 - \theta) \left( \frac{x_2}{x_1 + x_2} \right). \end{aligned} \quad (1)$$

- 5)  $m$  크기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객관적 강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0.5 < m \leq 1$ 인 경우는 소송 전 원고의 승소확률이 피고보다 높으므로 원고가 객관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0 \leq m < 0.5$ 인 경우는 피고가 객관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m = 0.5$ 인 경우는 소송 전 원고와 피고가 승소할 확률이 동일하므로, 소송인들 모두 객관적 강점을 보유하지 않는다(강판상·이동우, 2020).
- 6) 식 (1)의 승소확률함수가 객관적 강점이 존재하는 소송상황에서 각 소송인의 승소확률을 나타내기 적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소송인의 객관적 강점이 증가하면 각 소송인의 승소확률이 증가한다. 둘째, 원고 또는 피고 측 변호인이 소송 시 노력수준을 지출하지 않더라도 객관적 강점에 따라 각 소송인의 승소확률이 양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셋째, 판사 또는 배심원단의 최종 결정 시, 이들이 객관적 강점과 변호인들의 사실관계 입증에 위한 노력을 최종 결정에 반영하는 정도를 명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강판상·이동우, 2020).
- 7) 경합이론에서는 한 경기자가 노력수준을 지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경기자의 승리확률이 0이 된다. 하지만 경기자들의 사전적인 유리함이 존재하는 경합상황에서는 한 경기자가 노력수준을 지출하지 않더라도 해당 경기자의 사전적인 유리함에 의해 양의 확률로 경합에서 승리할 수 있다. 경기자들의 사전적인 유리함과 노력수준을 볼록결합(convex combination)한 형태의 승자결정함수는 이와 같이 한 경기자가 노력수준을 지출하지 않더라도 객관적 강점에 의해 해당 경기자가 갖게 되는 양의 승리확률을 나타낼 수 있다(Baik and Jung, 2019).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이 존재하는 소송상황 역시 경기자들의 사전적인 유리함(불리함)이 존재하는 경합상황에 해당되며, 원고 또는 피고 측 변호인이 노력수준을 지출하지 않더라도 객관적 강점에 따라 각 소송인은 양의 확률로 승소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각 소송인의 승소확률을 보다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식 (1)의 승소확률함수를 사용하도록 한다.

식 (1)의  $\theta$ 는 외생변수이며,  $\theta$ 의 값은 공통지식이라 가정한다. 단,  $0 < \theta < 1$ .<sup>8)</sup> 소송과정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판사 또는 배심원단은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에 관하여 소송인들과 대리인들에 비해 불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사항을 고려해 이들은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과 대리인들의 사실관계 입증에 위한 노력을 최종 판결에 적절히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theta$ 는 소송의 특성에 따라 판사 또는 배심원단이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을 최종 판결에 반영하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이후의 논의부터는  $\theta$ 를 객관적 강점의 중요도로 나타내도록 한다.

서론에서 언급했듯 본 논문의 주요 목적중 하나는, 소송인들이 객관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을 때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원고의 소송제기를 지원하기 위한 성공보수와 법률비용보험을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해 보는 데 있다. 이 같은 사항을 고려해 원고(소송인 1)는 재정상황이 열악한 개인 소송인, 그리고 피고(소송인 2)는 충분한 재정적 여력을 바탕으로 사내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라 가정한다. 또한 각 소송인이 자신의 소송비용을 지불하는 미국식 소송비용 부담원칙을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한다.<sup>9)</sup> 따라서 재정상황이 열악한 소송인 1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적절한 계약의 형태 또는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야 하는 반면, 소송인 2는 사내변호사에게 시간당 보수를 지불하며 소송에 참여하게 된다.

이어지는 논의들에서는 소송인 1이 성공보수를 활용하며 대리인 1과 체결한 성공보수 계약의 내용을 소송인 2가 관찰할 수 없는 경우를 먼저 분석한다. 또한 분석 결과들을 활용해 본 논문의 첫 번째 목적인 성공보수 계약의 관찰 가능여부 또는 공시여부의 효과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소송인 1이 법률비용보험을 활용하는 경우를 분석한 뒤, 본 논문의 두 번째 목적인 관찰 불가능한 성공보수 계약의 경우 성공보수하에서 소송의 결과들을 법률비용보험하에서 소송의 결과들과 비교해 본다.

8)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만 최종판결에 반영되는 경우( $\theta = 1$ )에는 소송의 진입단계에서 원고가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소송 전 피고와 합의에 이르게 된다. 즉, 각 제도하에서 소송인과 대리인은 소송 시 노력수준을 지출하지 않게(즉,  $x_1 = 0$  그리고  $x_2 = 0$ ) 된다. 또한 합의로 인해 원고는  $\psi_1 = mv$ , 그리고 피고는  $\psi_2 = (1-m)v$ 의 기대보수를 얻게 된다.

9) 미국식 소송비용 부담원칙과 달리 영국식 원칙은 패소한 소송인이 자신 및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 Ⅲ. 관찰 불가능한 성공보수 계약의 경우 계약 및 노력수준 결정

소송인 1이 성공보수를 활용하는 본 절의 논의에서는 소송인 1이 대리인 1과 체결한 성공보수 계약의 내용을 대리인 1은 관찰할 수 있는 반면, 소송인 2와 대리인 2는 관찰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한다. 소송인 1은 대리인 1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만  $\alpha v$  ( $0 < \alpha < 1$ )의 성공보수를 지불하게 되며, 패소할 경우 0의 보수를 지불하게 된다. 대리인 1은 소송인 1로부터 받게 될 성공보수 계약  $\alpha$ 를 관찰할 수 있으며 소송인 2와 대리인 2는 이를 관찰할 수 없다. 또한 성공보수의 경우 소송인 1은 대리인 1이 승소할 경우에만 보수를 지불하게 되므로, 대리인 1의 노력수준을 관찰할 수 없더라도 대리인 1에게 노력수준을 지출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기업에 해당하는 소송인 2는 사내변호사인 대리인 2를 고용하고 있으며 대리인 2에게 시간당 보수를 지불하게 된다. 이 경우 소송인 2는 대리인 2가 적절한 노력수준 또는 시간을 지출하는지 감시하기 위한 감시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리인 2의 노력수준을 감시하게 된다. 대리인 2의 노력수준을 감시하기 위해 소송인 2가 지출해야 하는 노력단위당 감시비용을  $\delta$  ( $\delta > 0$ )로 나타내면, 소송인 2의 전체 소용비용은  $(1 + \delta)x_2$ 가 된다.<sup>10)</sup>

위의 사항들을 고려해 먼저 소송인 1의 기대보수 함수는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si_1 = (1 - \alpha)vp_1. \quad (2)$$

한편 소송인 1과 달리 시간당 보수를 대리인 2에게 지급하게 되는 소송인 2의 기대보수 함수는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sup>11)</sup>

10) 선행연구들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소송인 2는 대리인 2에게 시간당 보수를 지불하기 때문에 대리인 2의 노력수준을 관찰할 수 있어야만 대리인 2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delta x_2$ 는 대리인 2의 전문지식을 이용하기 위해 소송인 2가 지불하는 추가비용으로도 볼 수 있다(Baik and Kim, 2007a).

11) 시간당 보수를 활용하는 경우를 고려한 많은 선행연구들의 논의에서와 같이 소송인 2는 자신이 직접 노력수준을 결정하며 대리인 2는 소송인 2를 대신해 이를 지출하게 된다.

$$\psi_2 = vp_2 - (1 + \delta)x_2. \quad (3)$$

다음으로 성공보수를 받게 되는 대리인 1의 기대보수 함수는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i_1 = \alpha vp_1 - x_1. \quad (4)$$

즉, 대리인 1은 승소할 경우에만 소송인 1이 얻게 되는 배상금의 일정비율만큼을 성공보수로 받게 되고 이를 위해 노력수준  $x_1$ 을 지출하게 된다. 반면 소송인 2로부터 시간당 보수를 받게 되는 대리인 2의 보수는  $\pi_2 = x_2 - x_2 = 0$ 이 된다. 또한  $\delta$ 를 소송인 2가 대리인 2의 전문지식을 이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노력수준 단위 당 추가비용으로 정의하면 대리인 2의 보수는  $\delta x_2$ 가 된다. 대리인 2의 보수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더라도 균형 결과들은 동일하므로 전자의 정의를 따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분석의 편의를 위해 대리인들은 0의 유보임금 수준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없는 경우 균형 성공보수 계약 및 균형 노력수준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게임을 고려한다. 먼저 소송인 1은 대리인 1을 고용하고, 성공보수 계약  $\alpha$ 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계약의 내용은 대리인 1에게는 관찰 가능한 반면, 소송인 2와 대리인 2에게는 관찰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대리인 1과 소송인 2는 동시에 노력수준( $x_1, x_2$ )을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노력수준  $x_1$ 은 대리인 1이 결정해 지출하게 되는 반면,  $x_2$ 는 소송인 2가 결정한 후 대리인 2가 소송인 2를 대신해 지출하게 된다. 게임이 끝나면 소송의 승패가 결정되며, 소송인들은 계약에 따라 자신의 대리인에게 보수를 지불하게 된다.

위 게임의 균형결과들(equilibrium outcomes)을 도출하기에 앞서 이 게임이 갖는 특징을 먼저 살펴보자.<sup>12)</sup> 이 게임은 피고 측(소송인 2와 대리인 2)이 원고 측(소송인 1과 대리인 1)의 성공보수 계약을 관찰할 수 없으므로, 불완전정보(imperfect information)가 존재하는 확장형 게임(extensive form game)으로 볼 수 있다. 따라

12)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있는 경우, 소송인 1이 성공보수 계약을 결정하고 대리인 1과 소송인 2가 이 계약의 내용을 확인한 후 노력수준을 결정하는 2 단계로 게임이 이루어지게 된다. 해당 게임의 자세한 분석 및 부분게임 완전균형에 대한 논의는 강판상·이동우(2020)를 참조하시오.

서 이 게임의 균형결과들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대리인 1은 소송인 1의 성공보수 계약과 소송인 2의 노력수준이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최적 노력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소송인 2는 대리인 1의 노력수준이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최적 노력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송인 1은 소송인 2의 노력수준이 주어진 상황에서, 대리인 1의 최적 노력수준을 고려해 최적 성공보수 계약을 결정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들과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게임이 갖는 특징을 고려해 볼 때, 부분게임 완전균형 또는 순차균형(sequential equilibrium)이 위 게임의 적절한 균형 개념이 된다. 본 절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순차균형 보다 부분게임 완전균형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sup>13)</sup> 또한 위 게임에서 존재할 수 있는 부분게임 완전균형들 중, 대리인 1이 모든 성공보수 계약  $\alpha$ 에 대해 최적대응을 하는 경우의 부분게임 완전균형만 고려하도록 한다.<sup>14)</sup>

이제 대리인 1과 소송인 2의 노력수준 결정을 살펴보자. 먼저 대리인 1은 소송인 1이 제시한 성공보수 계약을 확인한 후 자신의 기대보수를 극대화하는 노력수준  $x_1$ 을 결정한다. 대리인 1의 기대보수를 극대화 하는 1계 조건으로부터 대리인 1의 반응함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x_1(\alpha, x_2) = -x_2 + \sqrt{\alpha v(1-\theta)x_2}. \quad (5)$$

소송인 2는 원고 측의 성공보수 계약  $\alpha$ 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기대보수를 극대화하는 노력수준  $x_2$ 를 결정하고, 대리인 2가 이를 지출하게 된다. 식 (3)을 극대화하는 1계 조건으로부터 소송인 2의 반응함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13) 본 절에서 도출하게 될 부분게임 완전균형에서의 성공보수 계약과 노력수준에 소송인 2가 소송인 1의 균형 성공보수 계약에 대해 갖는 적절한 믿음(belief)을 더하면 순차균형에서의 성공보수 계약과 노력수준이 된다. 순차균형에서의 성공보수 계약, 노력수준, 그리고 소송인 2의 믿음은 각주 19를 참조하시오.

14) 본 절에서 다루고 있는 불완전정보 게임에서는, 소송인 1의 균형 성공보수 계약을 제외한 다른 성공보수 계약에 대해 대리인 1이 최적대응을 하지 않는 부분게임 완전균형 역시 존재할 수 있다. 즉, 균형 성공보수 계약이 아닌 계약에 대해 대리인 1이 최적대응이 아닌 노력수준을 선택하고, 이로부터 이탈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분게임 완전균형이 될 수 있다.

$$x_2(x_1) = -x_1 + \frac{\sqrt{v(1+\delta)(1-\theta)x_1}}{1+\delta}. \quad (6)$$

다음으로 소송인 1의 성공보수 계약 결정을 살펴보자. 소송인 1은 자신의 성공보수 계약 결정에 따른 대리인 1의 최적대응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인 2의 노력 수준이 주어진 상황에서, 대리인 1의 최적대응을 고려해 성공보수 계약을 결정하게 된다. 이 같은 사항을 반영한 소송인 1의 기대보수 함수는 아래와 같다.

$$\psi_1(\alpha, x_1(\alpha, x_2), x_2) = (1-\alpha) \left( \theta m + (1-\theta) \frac{x_1(\alpha, x_2)}{x_1(\alpha, x_2) + x_2} \right) v. \quad (7)$$

또한 식 (5)를 식 (7)에 대입하면 아래와 같은 소송인 1의 기대보수 함수를 얻을 수 있다.

$$\psi_1(\alpha, x_2) = (1-\alpha) \left( \theta m + \frac{(1-\theta)(-x_2 + \sqrt{\alpha v(1-\theta)x_2})}{\sqrt{\alpha v(1-\theta)x_2}} \right) v. \quad (8)$$

소송인 1은 식 (8)을 극대화하는 성공보수 계약  $\alpha$ 를 결정한다. 식 (8)을 극대화하는 1계 조건을 도출한 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소송인 1의 반응함수를 구할 수 있다.<sup>15)</sup>

$$4v\alpha^3(1-2\theta+2m\theta+\theta^2-2m\theta^2+m^2\theta^2)-\alpha^2x_2(1-\theta) \\ -2\alpha x_2(1-\theta)-x_2(1-\theta)=0. \quad (9)$$

이제 균형 성공보수 계약과 노력수준을 도출해 보자. 앞서 언급했듯 원고 측의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없는 경우 균형 성공보수 계약 및 노력수준은, 원고 측과 피고 측 모두 서로의 노력수준에 대한 최적대응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식 (5), (6), 그리고 (9)를 동시에 만족하는 성공보수 계약과 노력수준

15) 소송인 1의 기대보수 극대화를 위한 충분조건의 증명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이 균형 성공보수 계약 및 노력수준이 된다. 하지만 이 연립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자. 먼저 균형에서 나타나게 될 대리인 1과 소송인 2의 노력수준은  $x_1^* = tx_2^*$ , 또는  $t = x_1^*/x_2^*$ 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sup>16)</sup> 여기서 미지수  $t$ 는 양수이며 아래에서 구하게 될 균형 노력수준들로부터 도출되게 된다. 이 조건을 이용하면 식 (5)와 (9)는 균형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x_2^* = \frac{\alpha v(1-\theta)}{(1+t)^2}, \quad (10)$$

$$4v(\alpha^*)^3(1-2\theta+2m\theta+\theta^2-2m\theta^2+m^2\theta^2)-(\alpha^*)^2x_2^*(1-\theta) \\ -2\alpha^*x_2^*(1-\theta)-x_2^*(1-\theta)=0. \quad (11)$$

다음으로 조건  $x_1^* = tx_2^*$  및 식 (10)과 (11)로부터 아래의 성공보수 계약과 대리인 1의 노력수준을 구할 수 있다.

$$\alpha^* = \frac{1-\theta}{1-\theta+2m\theta+2t(1-\theta+m\theta)}, \quad (12)$$

$$x_1^* = \frac{(1-\theta)^2tv}{(1+t)^2[1-\theta+2m\theta+2t(1-\theta+m\theta)]}. \quad (13)$$

또한 조건  $x_1^* = tx_2^*$  및 식 (6)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소송인 2의 노력수준을 구할 수 있다.

$$x_2^* = \frac{(1-\theta)tv}{(1+\delta)(1+t)^2}. \quad (14)$$

---

16) 본 논문의 모형에서는  $\theta \in (0, 1)$ 이므로  $x_i^* = 0$ , 그리고  $x_j^* = 0$  ( $i, j = 1, 2$ , 단,  $i \neq j$ )인 경우의 균형 노력수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식 (5)와 (6)을 통해  $x_i^* > 0$ , 그리고  $x_j^* = 0$ 인 경우의 균형 노력수준 역시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 > 0$ 의 조건을 만족하는  $t$ 값이 유일하다면  $x_1^* = tx_2^*$ , 또는  $t = x_1^*/x_2^*$ 로부터 도출된 균형 성공보수 계약 및 0이 아닌 균형 노력수준 역시 유일함을 알 수 있다.

위에서 구한 성공보수 계약과 노력수준이 타당한 값을 갖기 위해서는 양의 미지수  $t$ 가 유일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조건  $x_1^* = tx_2^*$  및 식 (13)과 (14)를 이용하면 아래의 식 (15)를 얻을 수 있다.

$$2t^2(1 - \theta + m\theta) + t(1 - \theta + 2m\theta) - (1 - \theta)(1 + \delta) = 0. \quad (15)$$

쉽게 확인할 수 있듯 식 (15)는 유일한 양수 해  $t$ 를 가지므로, 이를 식 (12), (13), 그리고 (14)에 대입하면 균형 성공보수 계약 및 노력수준을 얻을 수 있다.<sup>17)</sup>

보조정리 1은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없는 경우 균형 성공보수 계약 및 노력수준을 요약한 결과이다.<sup>18)</sup>

**보조정리 1.**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없는 경우, 부분게임 완전균형에서의 성공보수 계약( $\alpha^*$ ) 및 노력수준( $x_1^*, x_2^*$ )은 다음과 같다.<sup>19)</sup>

- 
- 17) 식 (15)의 유일한 양수 해가 존재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식 (15)를  $f(t) = 0$ 로 정의하자.  $f(t)$ 의 경우  $t^2$ 의 계수가 양수이며,  $f(0) < 0$ 이므로 식 (15)를 만족하는 유일한 양수 해  $t$ 가 존재한다. 따라서 조건  $x_1^* = tx_2^*$ 로부터 도출된 균형 성공보수 계약과 노력수준은 유일하게 된다.
- 18) 엄밀하게 정의하면 식 (15)의 양수 해  $t$ 를 식 (12), (13), 그리고 (14)에 대입한 값들이 균형 성공보수 계약과 노력수준이지만, 균형결과들을 간결하게 나타내기 위해 이와 같이 표현하기로 한다. 또한 균형에서 소송인들의 기대보수 및 대리인 1의 기대보수는 <부록 2>의 보조정리 A1을 참조하시오.
- 19) 보조정리 1의 결과를 통해 순차균형에서의 성공보수 계약과 노력수준을 구성해 볼 수 있다. 먼저 보조정리 1의 균형결과들에 소송인 2가 소송인 1의 균형 성공보수 계약에 부여하는 믿음  $prob(\alpha = \alpha^*) = 1$ , 그리고 소송인 1의 나머지 성공보수 계약에 부여하는 믿음  $prob(\alpha \neq \alpha^*) = 0$ 을 추가하자. 이 같은 소송인 2의 믿음은 특정 경기자의 행동(action)이 관찰 불가능한 경우, 상대 경기자가 순차균형에서 이 같은 행동에 부여하는 믿음이 만족해야 하는 조건인 no signaling what you don't know condition(Fudenberg and Tirole, 1991)을 만족하게 된다. 다음으로 보조정리 1에서 제시한 소송인 2의 노력수준은 위와 같은 소송인 2의 믿음하에서 소송인 2의 기대보수를 극대화 하는 노력수준이므로 순차적 합리성(sequential rationality)을 만족하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송인 2의 믿음을 추가하면 보조정리 1의 균형결과들은 순차균형에서의 성공보수 계약과 노력수준이 된다.

$$(a) \alpha^* = \frac{1 - \theta}{1 - \theta + 2m\theta + 2t(1 - \theta + m\theta)}.$$

$$(b) x_1^* = \frac{(1 - \theta)^2 tv}{(1 + t)^2 [1 - \theta + 2m\theta + 2t(1 - \theta + m\theta)]}, \quad x_2^* = \frac{(1 - \theta)tv}{(1 + \delta)(1 + t)^2}.$$

$$\text{단, } t = \frac{-1 + \theta - 2m\theta + \sqrt{8(1 + \delta)(1 - \theta)(1 - \theta + m\theta) + (1 - \theta + 2m\theta)^2}}{4(1 - \theta + m\theta)}.$$

보조정리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균형 성공보수 계약은 객관적 강점( $m$ ), 객관적 강점의 중요도( $\theta$ ), 그리고 감시비용( $\delta$ )의 함수이다. 먼저 보조정리 1에서 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송인 1의 객관적 강점이 균형 성공보수 계약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살펴보자. 소송인 1의 객관적 강점이 커지는 것은 승소하기 용이하거나 사전적으로 유리한 소송을 대리인 1에게 의뢰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송인 1은 이 같은 자신의 유리함을 성공보수 계약 결정에 반영해 대리인 1에게 더 낮은 성공보수 계약(즉,  $\partial\alpha^*/\partial m < 0$ )을 제시하게 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감시비용이 과도하게 크지 않은 경우( $\delta \leq 0.8$ ) 객관적 강점에 따른 균형 성공보수 계약을 나타내면 <Figure 1>과 같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 소송인 1의 균형 성공보수 계약은 객관적 강점( $m$ )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게 된다.<sup>2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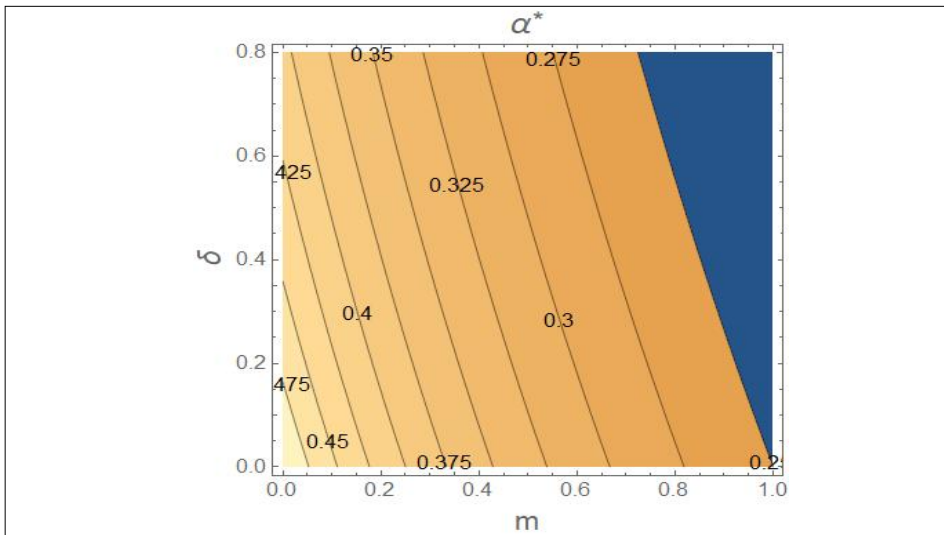
<Figure 1>은 실제 민사소송에서 체결되고 있는 성공보수 계약과 관련해 폭넓은 이해를 제공해줄 수 있다. 먼저 미국의 민사소송에서는 성공보수 계약이 배상금의 약 1/3정도로 체결되고 있다(Dana and Spier, 1993). 또한 Baik and Kim(2007b)은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있는 경우 균형 성공보수 계약이 1/3과 유사한 값을 가짐을 보였다. 한편 실제 민사소송에서는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없는 경우 또한 빈번하다. 따라서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성공보수 계약이 체결되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Figure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해당 경우 역시 객관적 강점과 감시비용에 따라 유사한 값의 균형 성공보수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민사소송에서 배상금의 약 1/3을 지급하는 성공보수 계약이 체결되는 것

20) <Figure 1>은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과 대리인들의 노력수준이 동일한 비중으로 최종 판결에 반영되는 경우( $\theta = 0.5$ )의 그래프이다. <Figure 1>과 같은 균형 성공보수 계약과 객관적 강점의 관계( $\partial\alpha^*/\partial m < 0$ )는 모든  $\theta$ (단,  $\theta \in (0, 1)$ ) 값에 대해 성립한다.

은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전략적 행동에 의한 최적 선택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 〈Figure 1〉은 균형 성공보수 계약이 1/3과는 다른 값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균형 성공보수 계약이 더 넓은 범위의 값을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Friehe (2010) 는 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균형 성공보수 계약이 1/3보다 크거나 작은 값을 가질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강판상·이동우(2020) 역시 관찰 가능한 성공보수 계약의 경우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에 따라 균형 성공보수 계약이 1/3보다 더 넓은 범위의 값을 가질 수 있음을 보였다. 이 연구들과 유사하게 관찰 불가능한 성공보수 계약의 경우에도 객관적 강점에 따라 균형 성공보수 계약은 더 넓은 범위 값을 가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불리한 소송의 경우( $m$ 의 값이 작은 경우), 원고는 자신의 변호인과 더 높은 수준의 성공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변호인이 더 높은 노력수준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불리함을 극복하게 된다. 또한 반대의 경우에는 자신의 변호인과 더 낮은 수준의 성공보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신의 유리함을 성공보수 계약에 반영하게 된다.

〈Figure 1〉 Contingent Fee Contract  $\alpha^*$  for  $v=1$ ,  $\theta=0.5$ ,  $m \in [0,1]$  and  $\delta \in [0,.8]$



요약하면 현실의 민사소송 사례에서 성공보수 계약이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이 성공보수 계약 결정에 반영되기 때문이



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보조정리 1의 결과를 이용해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이 최종 판결 시 반영되지 않는 경우와( $\theta = 0$ ) 반영되는 경우( $\theta \neq 0$ ), 소송비용과 관련된 균형결과들(성공보수 계약, 총 노력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균형 성공보수 계약을  $\alpha_{\theta=0}^*$ ,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균형 성공보수 계약을  $\alpha_{\theta \neq 0}^*$ 로 나타내자. 정리 1은 두 경우에 해당하는 균형 성공보수 계약을 비교한 결과이다.

**정리 1.** 객관적 강점이 최종 판결 시 반영되는 경우의 균형 성공보수 계약  $\alpha_{\theta \neq 0}^*$ 은 반영되지 않는 경우의 균형 성공보수 계약  $\alpha_{\theta=0}^*$ 보다 작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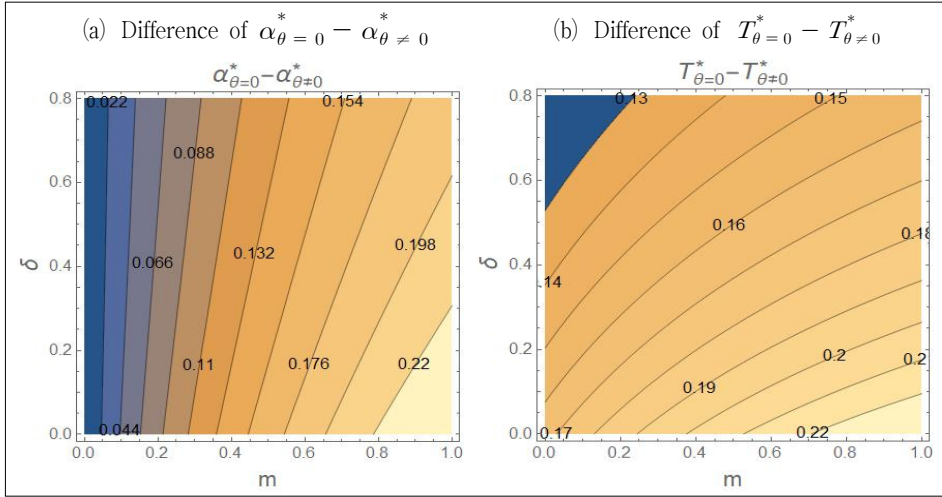
정리 1을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 및 대리인들의 노력수준을 최종 판결 시 모두 고려하게 되면, 소송에서 대리인들이 지출하는 노력수준의 중요성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소송인 1은 성공보수 계약 결정시 이를 반영해 대리인 1과 더 낮은 수준의 성공보수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Figure 2〉의 (a)는 전자( $\theta = 0$ )와 후자( $\theta \neq 0$ )의 경우에 해당하는 균형 성공보수 계약의 차이( $\alpha_{\theta=0}^* - \alpha_{\theta \neq 0}^*$ )를 나타낸 그래프이다.<sup>21)</sup>

〈Figure 2〉의 (a)에 나타나 있듯 각 경우에 해당하는 균형 성공보수 계약의 차이는 양의 값(즉,  $\alpha_{\theta=0}^* > \alpha_{\theta \neq 0}^*$ )을 가진다.

동일한 방법으로 두 경우에 해당하는 총 노력수준( $x_1^* + x_2^*$ )을 비교하기 위해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총 노력수준을  $T_{\theta=0}^* = x_{1,\theta=0}^* + x_{2,\theta=0}^*$ , 그리고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총 노력수준을  $T_{\theta \neq 0}^* = x_{1,\theta \neq 0}^* + x_{2,\theta \neq 0}^*$ 로 나타내자. 정리 2는 두 경우에 해당하는 총 노력수준을 비교한 결과이다.

21) 〈Figure 2〉의 (a)에서는  $\theta = 0$ 인 경우와  $\theta = 0.5$ 인 경우의 균형 성공보수 계약을 비교하였다. 또한  $\theta$ 값이  $\theta \in [0.1, .99]$ 인 모든 경우에도 〈Figure 2〉의 (a)와 유사한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Figure 2〉 Equilibrium Outcomes with/without Objective Merits of the Case  
for  $v = 1$ ,  $\theta = 0.5$ ,  $m \in [0, 1]$  and  $\delta \in [0, .8]$



**정리 2.** 객관적 강점이 최종 판결 시 반영되는 경우의 총 노력수준  $T_{\theta \neq 0}^*$  은 반영되지 않는 경우의 총 노력수준  $T_{\theta=0}^*$  보다 낮게 된다.

정리 2는 정리 1과 유사하게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정리 1의 결과로부터  $\theta \neq 0$ 인 경우 대리인 1은 더 낮은 수준의 성공보수를 지급받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리인 1은 이를 고려해 소송에서 지출하는 노력수준을 줄이게 된다. 또한 소송인 2는 소송인 1과 마찬가지로 대리인들이 지출하는 노력수준의 중요성이 감소함을 알게 되고, 이를 반영해 대리인 2가 지출하게 될 노력수준을 줄이게 된다. 요약하면 객관적 강점이 최종 판결 시 반영되는 경우, 대리인 1과 소송인 2 모두 노력수준을 줄이게 되므로 총 노력수준 역시 낮아지게 된다. 〈Figure 2〉의 (b)는 전자( $\theta = 0$ )와 후자( $\theta \neq 0$ )의 경우에 해당하는 총 노력수준의 차이 ( $T_{\theta=0}^* - T_{\theta \neq 0}^*$ )를 나타낸 그래프이다.<sup>22)</sup> 〈Figure 2〉의 (b)에 나타나 있듯, 각 경우에 해당하는 총 노력수준의 차이는 양의 값(즉,  $T_{\theta=0}^* > T_{\theta \neq 0}^*$ )을 가진다.

22) 〈Figure 2〉의 (b)에서는  $\theta = 0$ 인 경우와  $\theta = 0.5$ 인 경우의 총 노력수준을 비교하였다. 또한  $\theta$  값이  $\theta \in [0.1, .99]$ 인 모든 경우 〈Figure 2〉의 (b)와 유사한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 IV. 관찰 가능한 성공보수 계약과의 비교

본 절에서는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주요 균형결과들을 비교해 보도록 한다. 균형결과들을 비교하기에 앞서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있는 경우를 간략히 살펴보자. 강판상·이동우(2020)에 따르면 관찰 가능한 성공보수 계약의 경우 다음과 같은 2 단계로 게임이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소송인 1이 대리인 1과 성공보수 계약( $\alpha$ )을 체결하고 이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리게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대리인 1과 소송인 2가 이 계약의 내용을 확인한 후 동시에 노력수준( $x_1, x_2$ )을 결정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가 끝나면 소송의 승패가 결정되며, 대리인들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소송인들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위 게임의 부분게임 완전균형을 후방귀납법을 통해 구해보면 아래의 보조정리 2를 얻을 수 있다.<sup>23)</sup>

**보조정리 2.**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있는 경우 부분게임 완전균형에서의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a)} \quad \alpha^{**} &= \frac{\sqrt{(2+\delta)(1-\theta)} - \sqrt{1-\theta+m\theta}}{(1+\delta)\sqrt{1-\theta+m\theta}}, \\ \text{(b)} \quad x_1^{**} &= \frac{(\sqrt{(2+\delta)(1-\theta)} - \sqrt{1-\theta+m\theta})^2 v}{2+3\delta+\delta^2}, \\ x_2^{**} &= \frac{(\sqrt{(2+\delta)(1-\theta)(1-\theta+m\theta)} - (1-\theta+m\theta))v}{2+3\delta+\delta^2}. \end{aligned}$$

이제 보조정리 1, 2와 부록의 보조정리 A1, A2의 결과들을 이용해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의 관찰 가능여부가 주요 균형결과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자. 두 경우의 균형결과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시비용( $\delta$ )에 대한 적절한 제약이

23) 본 절의 주요 목적은 성공보수하에서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의 관찰가능 여부에 따른 소송의 주요 균형결과들을 비교해 보는 데 있다. 따라서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있는 경우 주요 균형결과들은, 해당 경우를 분석한 강판상·이동우(2020)의 보조정리 2의 결과들을 인용하도록 한다.

필요하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본 논문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소송 시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원고를 지원하기 위한 미국과 유럽의 두 제도를 비교하는 데 있다. 다음절의 논의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두 제도를 비교할 때 감시비용이 너무 크다면 법률비용보험 활용 시 소송인들의 소송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원고의 기대보수 측면에서 법률비용보험이 성공보수에 비해 항상 열등하게 된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를 논의에서 제외하기 위해 감시비용은  $0 < \delta \leq 0.8$ 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가정한 뒤, 보조정리 1, 2 및 부록의 균형결과들을 비교해 보도록 한다.

먼저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균형 성공보수 계약을 비교해 보자. 정리 3은 두 경우에 해당하는 균형 성공보수 계약을 비교한 결과이다.

**정리 3.**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없는 경우의 균형 성공보수 계약  $\alpha^*$ 은 관찰할 수 있는 경우의 균형 성공보수 계약  $\alpha^{**}$ 보다 크게 된다.

정리 3의 결과는 소송 및 경합상황에서 일어나는 사적정보의 공시와 관련해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먼저 위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없는 경우는 관찰할 수 있는 경우에 비해 대리인 계약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재정상황이 열악한 원고의 소송제기를 지원하기 위해 성공보수 제도를 도입한다면, 추가적으로 원고 측의 성공보수 계약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대리인 계약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경합이론에서는 경기자들의 사적정보 공시유인 및 효과에 대해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사적정보의 공시가 경합비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Gill(2008)에 따르면 R&D 경쟁 시 선도 기업은 낙관적인 중간결과를 공시함으로써 경쟁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쟁비용을 줄일 수 있다. 즉, R&D 경쟁에서 사적정보의 공시는 경쟁기업을 퇴출시키기 위한 장치(strategic deterrence device)로써 활용될 수 있다. 또한 Kovenock et al. (2015)은 경기자들이 상에 부여하는 가치가 사적정보인 경우, 사적정보의 공시가 이루어질 때의 총 노력비용이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보다 작아짐을 보였다. 요약하면 경합상황에서 경기자들의 사적정보 공시가 이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사적정보의 공시를 통해 경합의 강도(intensity of contests)를 낮추

고 이로부터 더 높은 기대보수를 얻기 위한 경기자들의 전략적 행동의 결과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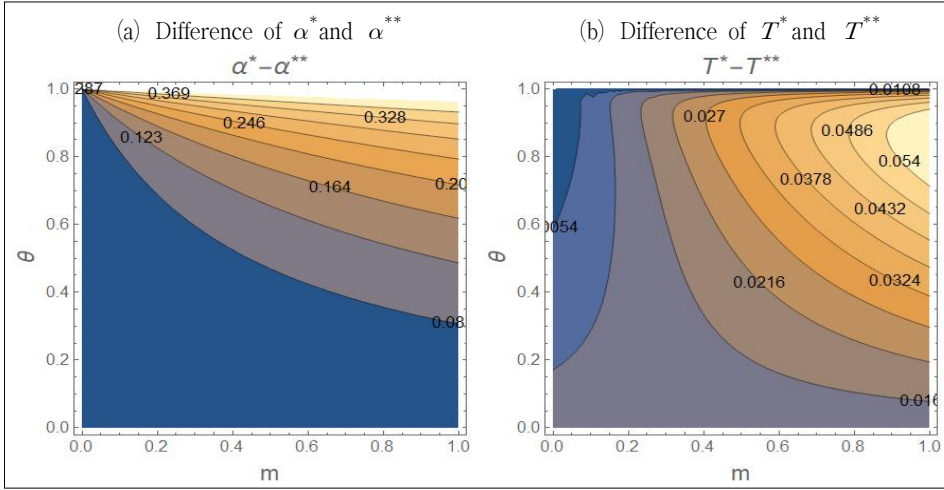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소송 시 원고가 성공보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성공보수 계약이 사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소송의 강도(intensity of lawsuit) 또는 치열함이 줄어들게 되고, 원고는 이를 고려해 더 낮은 수준의 성공보수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요약하면 소송 시 소송인들의 사적정보 또는 성공보수 계약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소송의 강도를 낮추며, 이로 인해 소송인들의 대리인 계약비용을 줄일 수 있다. 〈Figure 3〉의 (a)는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균형 성공보수 계약의 차이( $\alpha^* - \alpha^{**}$ )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양의 값(즉,  $\alpha^* > \alpha^{**}$ )을 가진다.<sup>24)</sup>

다음으로,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 또는 관찰 가능성이 소송의 강도 또는 총 노력수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두 경우 총 노력수준을 비교해 보자. 정리 3의 결과로부터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있는 경우, 소송인 1은 대리인 1과 더 낮은 수준의 성공보수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대리인 1의 노력수준 역시 낮아짐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소송인 2가 결정하는 노력수준 역시 낮아짐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두 경우 총 노력수준의 비교를 위해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없는 경우의 총 노력수준을  $T^* = x_1^* + x_2^*$ , 그리고 관찰할 수 있는 경우의 총 노력수준을  $T^{**} = x_1^{**} + x_2^{**}$ 로 나타내자. 두 경우 총 노력수준의 차이( $T^* - T^{**}$ )는 〈Figure 3〉의 (b)와 같으며,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이 차이는 양의 값(즉,  $T^* > T^{**}$ )을 갖는다.<sup>25)</sup>

24) 이 결과는  $\delta \in (0, 0.8]$ 인 모든 경우에 대해 성립하며, 〈Figure 3〉의 (a)의 결과는  $\delta = 0.7$ 인 경우 비교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25) 균형 성공보수 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결과는  $\delta \in (0, 0.8]$ 인 모든 경우에 대해 성립하며, 〈Figure 3〉의 (b)의 결과는  $\delta = 0.7$ 인 경우 비교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ure 3) Observable vs. Unobservable Contingent Fee Contract  
for  $v = 1$ ,  $\delta = 0.7$ ,  $\theta \in (0, 1)$  and  $m \in [0, 1]$



정리 4는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의 관찰 가능여부가 소송의 강도 또는 총 노력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고 있다.

**정리 4.**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없는 경우의 총 노력수준  $T^*$ 은 관찰할 수 있는 경우의 총 노력수준  $T^{**}$ 보다 높게 된다.

마지막으로 부록의 보조정리 A1과 A2를 이용해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소송인 1, 2 및 대리인 1의 기대보수를 비교해 보자. 먼저 성공보수 계약이 관찰 가능한 경우 소송인 1의 기대보수에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효과가 나타나며, 이 세 가지 효과는 앞의 두 경우 소송인 1이 갖는 기대보수의 상대적 크기를 결정하게 된다.

- 1) 첫 번째 효과는 정리 3에서 알 수 있듯 소송인 1의 대리인 계약비용 감소에 따른 효과이다. 즉, 성공보수 계약의 수준이 낮아지면 소송인 1의 대리인 계약비용이 감소하며, 이로 인해 소송인 1의 기대보수가 증가하게 된다. 이 효과를 대리인 계약비용 절감효과로 나타내자.
- 2) 두 번째 효과는 더 낮은 수준의 성공보수 계약에 대한 대응으로, 대리인 1이 소

송에서 지출하는 노력수준을 낮추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이다. 대리인 1이 소송에서 지출하는 노력수준을 낮추면 소송인 1의 승소확률이 감소하고, 소송인 1의 기대보수 또한 감소하게 된다. 이 효과는 승소확률효과로 나타내도록 한다.

- 3) 세 번째 효과는 소송인 2의 전략적 대응에 따른 효과이다. 대리인 1이 지출하는 노력수준의 감소는 소송인 2가 결정하는 노력수준을 낮추게 된다. 또한 대리인 1 역시 이에 대응해 노력수준을 조절하게 되므로 소송의 강도 또는 치열함이 변하게 된다.<sup>26)</sup> 이 효과는 경합효과로 나타내자.<sup>27)</sup>

다음으로 소송인 2의 기대보수를 살펴보자. 소송인 2는 대리인 1의 노력수준에 대응해 소송에서 지출하게 될 노력수준을 낮추게 되며, 이는 소송인 2의 기대보수를 증가시킨다. 이 효과는 노력비용 절감효과로 나타내자. 또한 낮아진 노력수준으로 인해 소송인 2의 기대보수에도 승소확률효과와 경합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한편 대리인 1은 성공보수 계약이 관찰 가능한 경우 더 낮은 수준의 성공보수를 지급받게 되고, 이는 대리인 1의 기대보수를 감소시킨다. 또한 더 낮은 수준의 성공보수 계약에 대한 대응으로 소송에서 지출하는 노력수준을 낮추면, 대리인 1의 기대보수에도 노력비용 절감효과, 승소확률효과, 그리고 경합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소송인 1과 마찬가지로 각 효과들은 두 경우 소송인 2 및 대리인 1이 갖는 기대보수의 상대적 크기를 결정하게 된다.

아래의 정리 5는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소송인 1, 2 및 대리인 1의 기대보수를 비교한 결과이다.

**정리 5.**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있는 경우 소송인들은 더 큰 기대보수(즉,  $\psi_1^{**} > \psi_1^*$ , 그리고  $\psi_2^{**} > \psi_2^*$ )를 얻게 되는 반면, 원고 측 변호인은 더 작은 기대보수(즉,  $\pi_1^{**} < \pi_1^*$ )를 얻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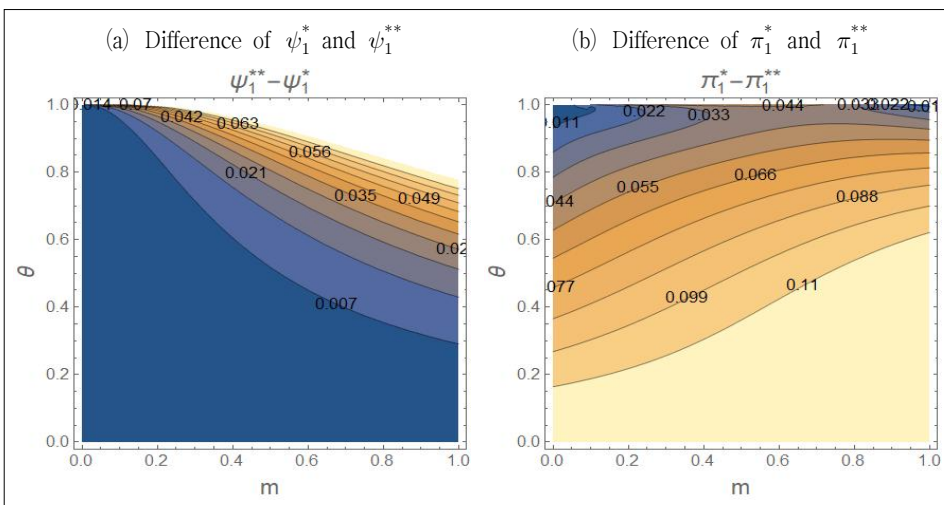
26) 해당 논의의 점검을 위해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대리인 1 및 소송인 2의 노력수준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비교 결과 대리인 1의 노력수준은 내부해가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전자의 경우가 후자의 경우보다 더 낮게 된다. 또한 소송인 2의 노력수준은 전자의 경우가 후자의 경우보다 항상 낮게 된다.

27) 경합효과와 경우 대리인들이 지출하는 노력수준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소송인들 및 대리인 1의 기대보수에 양 또는 음의 효과를 줄 수 있다.

정리 5의 결과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성공보수 계약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위에서 언급했듯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에 따른 대리인 계약비용 및 노력비용 절감효과는 소송인들의 기대보수를 증가시킨다. 반면 경합효과는 경우에 따라 소송인들의 기대보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으며, 나머지 효과들은 소송인들의 기대보수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정리 5의 결과로부터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에 따른 대리인 계약비용 및 노력비용 절감효과가 나머지 효과들보다 상대적으로 크을 알 수 있으며,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로 인해 소송인들은 더 큰 기대보수를 얻을 수 있다. 반면 원고 측 변호인의 기대보수에는 소송인들과 상반된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즉, 낮아진 성공보수 계약으로 인한 음의 효과가 가장 크게 되므로,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에 따라 대리인 1은 더 작은 기대보수를 얻게 된다.

위의 결과로부터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민사소송들에서 성공보수가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경우에 따라 변호사들의 수입료가 지나치게 높은 원인 중 하나는, 성공보수의 공시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소송 시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원고의 소송제기를 지원하기 위해 성공보수 제도를 도입한다면,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원고의 기대보수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4〉 Observable vs. Unobservable Contingent Fee Contract  
for  $v = 1$ ,  $\delta = 0.7$ ,  $\theta \in (0, 1)$  and  $m \in [0, 1]$





〈Figure 4〉의 (a)와 (b)는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의 관찰 가능여부에 따른 소송인 1의 기대보수의 차이 및 대리인 1의 기대보수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sup>28)</sup> 먼저 〈Figure 4〉의 (a)는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소송인 1의 기대보수의 차이( $\psi_1^{**} - \psi_1^*$ )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차이는 양의 값(즉,  $\psi_1^{**} > \psi_1^*$ )을 가지므로 전자의 경우 소송인 1의 기대보수가 더 크게 된다. 다음으로 〈Figure 4〉의 (b)는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대리인 1의 기대보수의 차이( $\pi_1^* - \pi_1^{**}$ )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차이는 양의 값(즉,  $\pi_1^* > \pi_1^{**}$ )을 갖게 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리인 1의 기대보수는 소송인 1과 달리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없는 경우 더 크게 된다.

## V. 성공보수와 법률비용보험의 비교

본 절에서는 소송인들이 객관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없는 경우 성공보수와 법률비용보험을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해 보도록 한다. 먼저 법정경합을 다룬 많은 연구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는 원고의 기대보수를 들 수 있다.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본 논문의 민사소송 사례들에서는 원고가 피고에 비해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게 된다. 이 경우 원고는 소송으로 인해 초래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이 너무 적다면 소송의 제기를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공보수와 법률비용보험 중, 원고에게 더 큰 기대보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재정상황이 열악한 원고의 소송제기를 지원하기에 더 적절한 제도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법정경합을 다룬 많은 연구들의 또 다른 관심사는 총 노력비용을 들 수 있다. 법정경합에서는 고정된 배상금으로 인해 총 노력수준의 증가가 소송비용과 지대의 소진이 커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행 시 총 노력수준이 더 낮은 제도가 소송비용으로 인한 지대의 소진을 줄이는 데 더 유용한 제도라 볼 수 있다. 본 절에서

28) 〈Figure 4〉의 결과들은  $\delta \in (0, 0.8]$ 인 모든 경우에 대해 성립한다. 또한 소송인 2의 경우 소송인 1과 유사한 그래프를 얻을 수 있으나, 본문의 논의에서는 소송인 1과 대리인 1의 기대보수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소송인 2의 기대보수 비교 그래프는 생략하도록 한다.

도 선행연구들의 주요 관심사인 원고의 기대보수와 총 노력수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성공보수와 법률비용보험을 비교해 보도록 한다.

두 제도를 비교하기에 앞서 원고가 법률비용보험을 활용하는 경우를 간략히 살펴 보자. 법률비용보험하에서는 성공보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소송인들은 대리인들에게 시간당 보수를 지불하게 된다. 재정상황이 열악한 소송인 1은 법률비용보험을 구매하고 있으며, 대리인 1에게 시간당 보수를 지불하기 위해 노력수준 단위당  $r(r \geq 0)$ 만큼의 추가비용을 지불하게 된다.<sup>29)</sup> 또한 소송인 2와 마찬가지로 대리인 1이 지출하는 노력수준의 감시를 위해 노력수준 단위당  $\delta(\delta > 0)$ 의 감시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따라서 법률비용보험하에서 소송인 1의 총 소송비용은  $(1 + r + \delta)x_1$ 이 된다.

이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먼저 소송인 1의 기대보수함수는 식 (1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hat{\psi}_1 = vp_1 - (1 + r + \delta)x_1. \quad (16)$$

소송인 2 역시 대리인 2에게 시간당 보수를 지급하게 되므로, 소송인 2의 기대보수함수는 성공보수의 경우와 동일하며, 이를 나타내면 아래의 식 (17)과 같다.<sup>30)</sup>

$$\hat{\psi}_2 = vp_2 - (1 + \delta)x_2. \quad (17)$$

법률비용보험하에서는 소송인 1과 소송인 2가 직접 노력수준을 결정한 뒤, 대리인들이 소송인들을 대신해 이를 투입하게 된다. 따라서 법률비용보험하에서는 소송인 1과 소송인 2가 동시에 노력수준을 결정하는 1 단계로 게임이 진행된다. 이제 이 게임의 균형 노력수준을 도출하기 위해 각 소송인의 기대보수함수를 극대화하는

29) 법률비용보험 활용 시 소송인은 예기치 못한 소송에 대비해 보험업자에게 보험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r$ 은 소송인 1이 보험업자에게 지불하는 프리미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Baik and Kim(2007a)에서는  $r$ 을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소송인 1이 시간당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할 때 지불하는 추가비용, 즉, 자금차입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30) 시간당 보수를 지급받게 되는 대리인들의 기대보수는 0 또는  $\delta x_i$  (단,  $i = 1, 2$ )가 된다.

1계 조건으로부터 반응함수를 구해보면 아래와 같다.

$$x_1(x_2) = -x_2 + \frac{\sqrt{v(1+r+\delta)(1-\theta)x_2}}{1+r+\delta}, \quad (18)$$

$$x_2(x_1) = -x_1 + \frac{\sqrt{v(1+\delta)(1-\theta)x_1}}{1+\delta}. \quad (19)$$

다음으로 식 (18)과 (19)를 활용해 각 소송인의 내쉬균형 노력수준을 구한 뒤, 균형에서의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면 아래의 보조정리 3을 얻을 수 있다.<sup>31)</sup>

**보조정리 3.** 법률비용보험하에서 각 소송인의 내쉬균형 노력수준( $x_1^{***}, x_2^{***}$ ) 및 기대보수( $\psi_1^{***}, \psi_2^{***}$ )는 다음과 같다.

$$(a) \quad x_1^{***} = \frac{(1+\delta)(1-\theta)v}{(2+r+2\delta)^2}, \quad x_2^{***} = \frac{(1+r+\delta)(1-\theta)v}{(2+r+2\delta)^2}.$$

$$(b) \quad \psi_1^{***} = \left[ m\theta + (1-\theta) \left( \frac{1+\delta}{2+r+2\delta} \right)^2 \right] v, \\ \psi_2^{***} = \left[ \theta(1-m) + (1-\theta) \left( \frac{1+r+\delta}{2+r+2\delta} \right)^2 \right] v.$$

이제 보조정리 1과 보조정리 3, 그리고 부록의 보조정리 A1을 이용해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없는 경우 성공보수와 법률비용보험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아래의 논의들에서는 두 제도하에서 원고의 기대보수와 총 노력수준을 비교해 보도록 한다.

## 1. 원고의 기대보수

성공보수와 법률비용보험하에서 소송인 1의 균형 기대보수를 비교해 보자. 보조

31) 보조정리 3의 결과는 강판상·이동우(2020)의 보조정리 3을 인용하였으며,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이 존재하는 경우 법률비용보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해당논문을 참조하시오.

정리 A1과 보조정리 3을 살펴보면 소송인 1의 균형 기대보수는 객관적 강점의 중요도( $\theta$ ), 객관적 강점( $m$ ), 감시비용( $\delta$ ), 그리고 보험 프리미엄( $r$ )의 함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송인 1의 균형 기대보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감시비용 및 보험 프리미엄에 대한 추가적인 제약이 필요하다.

먼저 감시비용을 살펴보자. 앞 절의 논의에서도 언급했듯 대리인에게 시간당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감시비용의 증가는 소송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감시비용이 지나치게 크게 되면, 법률비용보험 활용 시 소송인 1의 기대보수는 성공보수 활용 시의 기대보수보다 항상 작게 된다. 이를 고려해 성공보수와 법률비용보험을 비교한 선행연구들에서는 감시비용의 값이 지나치게 크지 않은 경우를 고려해 두 제도를 비교하고 있으며, 적절한 감시비용의 범위를 찾기 위해 해당연구들의 논의를 살펴보자. 먼저 Baik and Kim(2007a)은 원고의 자금차입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r = 0$ ) 감시비용이  $\delta < 0.78$ 의 조건을 만족하면, 법률비용보험하에서 원고가 더 큰 기대보수를 얻게 됨을 보였다. 또한 Friehe(2010)는 두 제도하에서 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원고의 기대보수를 비교하기 위해 감시비용에  $0 \leq \delta \leq 0.8$ 의 조건을 부여한 후 원고의 기대보수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강판상·이동우(2020)는 성공보수 계약이 관찰 가능한 경우, 객관적 강점에 따른 원고의 기대보수 비교를 위해 감시비용에  $0 < \delta \leq 0.8$ 의 조건을 부여한 후, 원고의 기대보수를 비교하였다. 본 논문의 논의에서도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이 성립하는지 점검해 보기 위해 감시비용은  $0 < \delta \leq 0.8$ 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가정하자.

다음으로 보험 프리미엄을 살펴보자. 보험 프리미엄의 증가는 법률비용보험 활용 시 소송인 1의 소송비용이 증가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험 프리미엄이 너무 크게 되면 소송인 1에게는 법률비용보험이 성공보수보다 항상 열등하게 되며, 이 같은 경우를 논의에서 제외하기 위해 보험 프리미엄 역시 적절한 제약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들과 비교해 보기 위해 보험 프리미엄 역시 선행연구들과 동일하게  $0 \leq r \leq 0.1$ 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가정하자.

정리 6은 감시비용과 보험 프리미엄이 너무 크지 않을 때, 성공보수와 법률비용보험하에서 소송인 1의 균형 기대보수를 비교한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정리 6.** 원고의 객관적 강점이 매우 낮으며 최종 판결 시 객관적 강점이 매우 낮게 반영되는 경우( $0 \leq m < 0.2$ , 그리고  $0 < \theta < 0.2$ )를 제외하면, 법률비용보험

이 성공보수보다 원고에게 더 큰 기대보수(즉,  $\psi_1^{***} > \psi_1^*$ )를 제공해 주게 된다.

정리 6은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의 관찰 가능여부에 따라 해당 제도들하에서 원고의 기대보수를 비교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이 성립하거나 또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논의하기 위해 먼저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이 존재하며,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있는 경우 두 제도하에서 원고의 기대보수를 비교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살펴보자. 강판상·이동우(2020)에 따르면 원고가 객관적 강점을 가지며 최종 판결에 객관적 강점이 매우 크게 반영되는 경우, 성공보수가 원고에게 더 큰 기대보수를 제공해 주게 된다. 즉, 소송 전 원고에게 유리함이 있으며 이 같은 유리함이 최종 판결에 충분히 크게 반영되면, 원고는 자신의 유리함을 성공보수 계약에 반영해 성공보수를 낮추게 되므로 법률비용보험에 비해 더 큰 기대보수를 얻을 수 있다. 반면, 최종 판결에 객관적 강점이 매우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면 법률비용보험이 원고에게 더 큰 기대보수를 제공해 주게 된다.

정리 6의 결과는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없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법률비용보험하에서 원고가 더 큰 기대보수를 얻게 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강판상·이동우(2020)와는 달리 원고가 객관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객관적 강점이 최종 판결에 충분히 크게 반영되는 경우에도 법률비용보험하에서 원고가 더 큰 기대보수를 얻게 됨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공보수 계약의 비 공시에 따른 원고의 대리인 계약비용 증가가 원고가 보유한 유리함 및 이 유리함이 최종판결에 크게 반영됨으로써 발생하는 계약비용의 감소보다 크므로 원고는 법률비용보험을 선호하게 된다. 따라서 제한된 경우에서라도 성공보수하에서 원고가 더 큰 기대보수를 얻게 하려면,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의무를 통해 대리인 계약비용을 절감해 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성공보수가 법률비용보험보다 원고에게 더 큰 기대보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경우를 간략히 살펴보자. 원고의 객관적 강점이 매우 낮고 최종 판결 시 객관적 강점이 적절히 반영되는 경우에는 원고의 승소확률이 매우 낮으므로 기대보수 역시 매우 작아지게 된다. 한편, 정리 6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이 매우 불리한 소송에서 최종 판결에 자신의 불리함이 매우 낮게 반영된다면 성공보수를 더 선호할 수 있다. 즉, 이 같은 경우에는 원고의 불리함이 최종 판결에 거의 반영되지 않으므로

성공보수를 통해 대리인이 더 높은 노력수준을 지출하게 하고, 이를 통해 원고 자신의 기대보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sup>32)</sup> 요약하면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없으며,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이 최종 판결 시 적절히 반영되는 경우에는 법률비용보험이 성공보수보다 원고에게 더 큰 기대보수를 제공해 주게 된다. 〈Figure 5〉의 (a)는 성공보수와 법률비용보험하에서 원고의 기대보수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psi_1^* - \psi_1^{***}$ ), 그 차이는 음의 값(즉,  $\psi_1^* < \psi_1^{***}$ )을 가짐을 볼 수 있다.<sup>33)</sup>

## 2. 총 노력수준

성공보수와 법률비용보험하에서 총 노력수준을 비교해 보자. 총 노력수준의 비교를 위해 성공보수하에서 총 노력수준은  $T^* = x_1^* + x_2^*$ , 그리고 법률비용보험하에서 총 노력수준은  $T^{***} = x_1^{***} + x_2^{***}$ 로 나타내도록 한다.

정리 7은 감시비용과 보험 프리미엄이 너무 크지 않을 때, 두 제도하에서 총 노력수준을 비교한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정리 7.**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 및 중요도와 관계없이( $0 \leq m \leq 1$ , 그리고  $0 < \theta < 1$ ) 성공보수하에서 총 노력수준은 법률비용보험하에서의 총 노력수준보다 낮게(즉,  $T^* < T^{***}$ ) 된다.

정리 7은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 및 객관적 강점의 중요도와 관계없이 원고가 성공보수를 활용하는 경우의 총 노력수준이 법률비용보험을 활용하는 경우의 총 노력수준보다 낮아짐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로서 먼저 성공보수하에서 이루어지는 주인-대리인 관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소송인들이 직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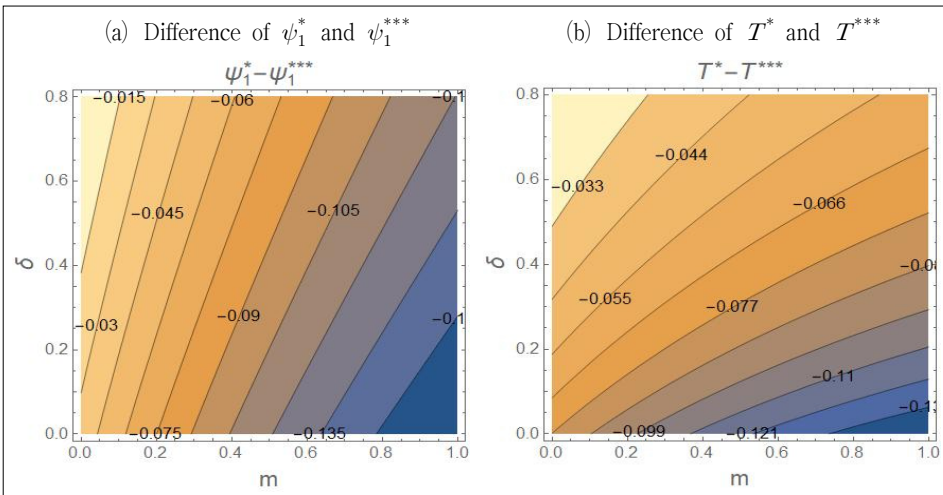
32)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없는 경우의 성공보수 계약은 관찰할 수 있는 경우의 성공보수 계약보다 항상 크므로,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대리인 1의 노력수준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33) 이 결과는  $0.2 \leq \theta < 1$ , 그리고  $0.2 \leq m \leq 1$ 인 모든 경우에 대해 성립한다. 〈Figure 5〉의 (a)에서는 보험 프리미엄이 너무 크지 않으며( $r=0.05$ ), 최종 판결 시 객관적 강점이 대리인들의 노력수준과 동일한 비중으로 반영되는 경우( $\theta=0.5$ )의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노력수준을 결정하는 법률비용보험과 달리 성공보수하에서는, 원고가 자신의 변호인에게 노력수준의 결정권한을 위임하게 된다. 이로 인해 원고와 다른 목적함수를 가진 원고 측 변호인은 원고가 직접 노력수준을 결정하는 경우보다 더 낮은 노력수준을 결정해 지출하게 된다. 즉, 원고 측 변호인은 원고가 제시하는 성공보수 계약에 대응해 자신의 기대보수를 극대화 하는 노력수준을 결정하므로, 소송인들이 직접 노력수준을 결정하는 법률비용보험의 경우보다 더 낮은 노력수준을 지출하게 된다.

다음으로 최종 판결 시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이 반영되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최종 판결에 객관적 강점이 반영되게 되면 소송에서 변호인들이 지출하는 노력수준의 중요성이 감소하게 되며, 이는 두 제도하에서 지출되는 노력수준을 모두 감소시킨다. 하지만 성공보수하에서는 원고가 아닌 원고 측 변호인이 노력수준을 결정하므로, 주인-대리인 관계와 맞물려 법률비용보험의 경우보다 노력수준이 더 크게 감소하게 된다. <Figure 5>의 (b)는 성공보수와 법률비용보험하에서 총 노력수준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T^* - T^{**}$ ), 그 차이는 음의 값(즉,  $T^* < T^{**}$ )을 가짐을 볼 수 있다.<sup>34)</sup>

<Figure 5> Contingent Fee Regime vs. Legal Expenses Insurance Regime  
for  $v = 1$ ,  $\theta = 0.5$ ,  $r = 0.05$



34) 이 결과는  $0 < \theta < 1$ , 그리고  $0 \leq m \leq 1$ 인 모든 경우에 대해 성립한다. <Figure 5>의 (b)에서는 보험 프리미엄이 너무 크지 않으며( $r = 0.05$ ), 최종 판결 시 객관적 강점이 대리인들의 노력수준과 동일한 비중으로 반영되는 경우( $\theta = 0.5$ )의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정리 7과 두 제도하에서 총 노력수준을 비교한 다른 연구결과들을 비교해 보고,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의 관찰 가능여부가 두 제도하에서 총 노력수준의 비교에 있어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논의해 보자. 앞서 언급한 강판상·이동우(2020)에 따르면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정리 7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을 고려하지 않고,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이 관찰 가능한 경우를 분석한 Baik and Kim(2007a)에서도 정리 7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한편, 본 논문의 정리 4에서는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의 비 공시로 인해 공시가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총 노력수준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정리 7은 성공보수 계약의 비 공시로 인해 총 노력수준이 높아지더라도, 성공보수하에서 주인-대리인 관계로 인해 초래되는 노력수준의 감소가 더 크게 됨을 암시하고 있다. 즉, 성공보수하에서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의 비 공시로 인해 성공보수 계약 및 총 노력수준 모두 높아지더라도, 소송인들이 직접 노력수준을 결정하는 법률비용보험의 경우보다는 총 노력수준이 낮게 된다.

## VI. 결 론

본 논문은 소송인들이 보유한 객관적 강점 및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여부가 소송의 결과들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과 최종 판결 시 객관적 강점이 반영되는 정도를 명시적으로 모형에 반영한 뒤, 성공보수와 법률비용보험하에서 성공보수 계약 및 노력수준 결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성공보수의 경우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해,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에 따른 여러 효과들을 논의하였다.

먼저 성공보수하에서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인들이 보유한 객관적 강점 및 객관적 강점의 중요도가 소송의 결과들에 주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고의 객관적 강점이 커질수록 성공보수 계약은 감소하게 된다. 둘째, 최종 판결 시 객관적 강점이 반영되는 경우의 성공보수 계약은 반영되지 않는 경우보다 작게 된다. 셋째, 최종 판결 시 객관적 강점이 반영되는 경우의 총 노력수준은 반영되지 않는 경우의 총 노력수준보다 낮게 된다.

다음으로 성공보수하에서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효과는 아래와 같다. 첫



째,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성공보수 계약은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비해 작아지게 된다. 둘째,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총 노력수준은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보다 낮게 된다. 셋째,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가 이루어지면 소송인들은 더 큰 기대보수를 얻게 되는 반면, 원고 측 변호인은 더 작은 기대보수를 얻게 된다.

마지막으로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이 존재하며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없는 경우 성공보수와 법률비용보험을 비교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소송 전 원고가 매우 불리하며, 이 같은 원고의 불리함이 최종 판결 시 매우 낮게 반영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고는 법률비용보험을 활용함으로써 더 큰 기대보수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성공보수하에서 총 노력수준은 법률비용보험하에서 총 노력수준보다 항상 낮게 된다.

본 논문은 소송인들이 객관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함으로써, 객관적 강점의 유무 및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여부가 소송의 결과들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반면, 본 논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논의 및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소송을 이해하는 데 보다 폭넓은 이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소송비용의 부담원칙과 관련해 한국의 민사소송에서는 미국식 원칙이 아닌 영국식 원칙이 활용되고 있다. 성공보수하에서의 의사결정을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본 논문의 모형에 영국식 원칙을 도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초래되며, 이로 인해 영국식 원칙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한 것은 본 논문의 모형이 갖는 한계점이라 생각된다. 둘째, 소송인들을 대신해 법정경합에 참여하는 대리인들의 능력이 동일하기 보다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언급된바 있듯, 변호사들의 능력이 다른 경우 재정적으로 원고에 비해 우위에 있는 피고는 더 뛰어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다. 또한 재정상황이 열악한 원고는 이 경우 소송을 제기 하기보다 소송 전 합의를 더 선호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보수구조와 관련해 본 논문에서 언급된 보수구조 외 추가적인 보수구조가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정상황이 열악한 원고의 소송제기를 지원하기 위한 두 제도를 비교하기 위해, 성공보수와 시간당 보수로 보수구조를 한정하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하지만 개인 간 민사소송을 고려할 경우 성공보수와 고정보수가 혼합된 혼합보수, 또는 원고와 피고 모두 성공보수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의 위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 ■ 참 고 문 헌

1. 강판상·이동우, “객관적 강점이 존재하는 경우의 법정경합,” 『경제학연구』, 제68집 제1호, 2020, pp. 43-69.  
(Translated in English) Kang, Pan Sang, and Dongwoo Lee, “Litigation Contests with Objective Merits of the Case,”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Vol. 68, No. 1, 2020, pp. 43-69.
2. 박성훈·이명훈, “변호사 보수구조의 전략적 결정: 화해를 고려하는 경우,” 『국제경제연구』, 제15권 제2호, 2009, pp. 55-86.  
(Translated in English) Park, Sung-Hoon, and Myunghoon Lee, “Strategic Decisions on Lawyers’ Compensation Structure: in Consideration of Settlement,” *Kukje Kyungje Yongu*, Vol. 15, No. 2, 2009, pp. 55-86.
3. \_\_\_\_\_, “일방대리인 법정 콘테스트와 성공보수,” 『경제학연구』, 제58집 제3호, 2010, pp. 5-35.  
(Translated in English) Park, Sung-Hoon, and Myunghoon Lee, “Unilateral-Delegation Contest and Contingent Fees,”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Vol. 58, No. 3, 2010, pp. 5-35.
4. \_\_\_\_\_, “혼합보수와 쌍방대리인 콘테스트,” 『법경제학연구』, 제8권 제1호, 2011a, pp. 103-120.  
(Translated in English) Park, Sung-Hoon, and Myunghoon Lee, “Hybrid-Fee Compensation and Bilateral-Delegation Contests,” *Korea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8, No. 1, 2011a, pp. 103-120.
5. \_\_\_\_\_, “쌍방대리인 법정콘테스트와 성공보수,” 『산업경제연구』, 제24권 제5호, 2011b, pp. 3023-3040.  
(Translated in English) Park, Sung-Hoon, and Myunghoon Lee, “Bilateral-Delegation Court Contest and Contingent Fee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Vol. 24, No. 5, 2011b, pp. 3023-3040.
6. Baik, K. H., “Equilibrium Contingent Compensation in Contests with Delegation,” *Southern Economic Journal*, Vol. 73, No. 4, 2007, pp. 986-1002.
7. \_\_\_\_\_, “Attorneys’ Compensation in Litigation with Bilateral Delegation,” *Review of Law & Economics*, Vol. 4, No. 1, 2008, pp. 259-289.

8. Baik, K. H. and I.-G. Kim, "Delegation in Contest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3, No. 2, 1997, pp.281-298.
9. \_\_\_\_\_, "Contingent Fess versus Legal Expenses Insurance,"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Vol. 27, No. 3, 2007a, pp.351-361.
10. \_\_\_\_\_, "Strategic Decisions on Lawyers' Compensation in Civil Disputes," *Economic Inquiry*, Vol. 45, No. 4, 2007b, pp.854-863.
11. Baik, K. H. and J. H. Lee, "Endogenous Timing in Contests with Delegation," *Economic Inquiry*, Vol. 51, No. 4, 2013, pp.2044-2055.
12. Baik, K. H. and J. Kim, "Contests with Bilateral Delegation: Unobservable Contracts,"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Vol. 170, No. 3, 2014, pp.387-405.
13. Baik, K. H. and H. M. Jung, "Asymmetric Contests with Initial Probabilities of Win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 Theory*, Vol. 15, No. 4, 2019, pp.385-398.
14. Dana, J. and K. E. Spier, "Expertise and Contingent Fees: The Role of Asymmetric Information in Attorney Compensation,"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Vol. 9, No. 2, 1993, pp.349-367.
15. Emons, W., "Expertise, Contingent Fees, and Insufficient Attorney Effort,"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Vol. 20, No. 1, 2000, pp.21-33.
16. Emons, W. and N. Garoupa, "US-Style Contingent Fees and UK-Style Conditional Fees: Agency Problems and the Supply of Legal Services," *Managerial and Decision Economics*, Vol. 27, No. 5, 2006, pp.379-385.
17. Emons, W. and C. Fluet, "Why Plaintiffs' Attorneys Use Contingent and Defense Attorneys Fixed Fee Contracts,"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Vol. 47, 2016, pp.16-23.
18. Farmer, A. and P. Pecorino, "Legal Expenditure as a Rent-Seeking Game," *Public Choice*, Vol. 100, No. 3-4, 1999, pp.271-288.
19. Friehe, T., "Contingent Fees and Legal Expenses Insurance: Comparison for Varying Defendant Fault,"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Vol. 30, No. 4, 2010, pp.283-290.
20. Fudenberg, D. and J. Tirole, "Perfect Bayesian Equilibrium and Sequential Equilibrium," *Journal of Economic Theory*, Vol. 53, No. 2, 1991, pp.236-260.
21. Gravelle, H. and M. Waterson, "No Win, No Fee: Some Economics of Contingent Legal Fees," *Economic Journal*, Vol. 103, No. 420, 1993, pp.1205-1220.
22. Gill, D., "Strategic Disclosure of Intermediate Research Results," *Journal of Economics & Management Strategy*, Vol. 17, No. 3, 2008, pp.733-758.
23. Heyes, A., N. Rickman, and D. Tzavara, "Legal Expenses Insurance, Risk Aversion and Litig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Vol. 24, No. 1, 2004, pp.107-119.
24. Hirshleifer, J. and E. Osborne, "Truth, Effort, and the Legal Battle," *Public Choice*, Vol. 108, No. 1-2, 2001, pp.169-195.
25. Katz, A., "Judicial Decisionmaking and Litigation Expenditure,"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Vol. 8, No. 2, 1988, pp.127-143.

26. Kovenock, D., F. Morath, and J. Münster, "Information Sharing in Contests," *Journal of Economics & Management Strategy*, Vol. 24, No. 3, 2015, pp.570-596.
27. Osório, A. and B. Luppi, "Argumentation Quantity and Quality: A Litigation Success Function,"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Vol. 59, 2019, pp.21-30.
28. Park, S.-H. and S. Lee, "How Do Risk-Averse Litigants Set Contingent Fees for Risk-Neutral Lawyers?" *Review of Law and Economics*, Vol. 15, No. 2, 2019, pp.1-19.
29. Schoonbeek, L., "A Delegated Agent in a Winner-takes-all Contest," *Applied Economics Letters*, Vol. 9, No. 1, 2002, pp.21-23.
30. \_\_\_\_\_, "Delegation with Multiple Instruments in a Rent-Seeking Contest," *Public Choice*, Vol. 131, No. 3-4, 2007, pp.453-464.
31. \_\_\_\_\_, "Information and Endogenous Delegation in a Rent-Seeking Contest," *Economic Inquiry*, Vol. 55, No. 3, 2017, pp.1497-1510.
32. Wärneryd, K., "In Defense of Lawyers: Moral Hazard as an Aid to Cooperation," *Games and Economic Behavior*, Vol. 33, No. 1, 2000, pp.145-158.
33. Yildirim, H., "Contests with Multiple Rounds," *Games and Economic Behavior*, Vol. 51, No. 1, 2005, pp.213-227.

## 〈부록 1〉

〈부록 1〉에서는 소송인 1의 기대보수 극대화를 위한 충분조건을 증명하기 위해 식 (8)의 오목성(concavity) 여부를 점검해 본다. 먼저 식 (8)의  $\alpha$ 에 대한 1계 미분함수를 구하면 아래와 같다.

$$\begin{aligned} \frac{\partial \psi_1(\alpha, x_2)}{\partial \alpha} = & - \left[ \theta m + (1 - \theta) \frac{\sqrt{\alpha v(1 - \theta)x_2} - x_2}{\sqrt{\alpha v(1 - \theta)x_2}} \right] v \\ & + \frac{(1 - \alpha) \sqrt{v(1 - \theta)x_2}}{2\alpha^{3/2}}. \end{aligned} \quad (A1)$$

다음으로 식 (A1)을 이용해 식 (8)의  $\alpha$ 에 대한 2계 미분함수를 구하면 아래와 같다.

$$\frac{\partial^2 \psi_1(\alpha, x_2)}{\partial \alpha^2} = - \left[ \frac{1}{4\alpha^{3/2}} + \frac{3}{4\alpha^{5/2}} \right] \sqrt{v(1 - \theta)x_2} < 0. \quad (A2)$$

식 (A2)의 값으로 부터 소송인 1의 기대보수 함수  $\psi_1(\alpha, x_2)$ 은 강 오목(strictly concave)함을 알 수 있으며, 소송인 1의 기대보수 극대화를 위한 충분조건이 성립하게 된다.

## 〈부록 2〉

〈부록 2〉에서는 성공보수하에서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소송인 1, 2 및 대리인 1의 기대보수를 나타낸다. 먼저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없는 경우 각 소송인과 대리인 1의 균형 기대보수를 정리하면 보조정리 A.1과 같다.

**보조정리 A1.**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없는 경우 부분게임 완전균형에서 각 소송인의 기대보수( $\psi_1^*, \psi_2^*$ ) 및 원고 측 변호인의 기대보수( $\pi_1^*$ )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a) \quad \psi_1^* &= \left( 1 - \frac{1-\theta}{(1-\theta+2\theta m)+2t(1-\theta+\theta m)} \right) \\
 &\quad \left( \theta m + (1-\theta) \frac{(1+\delta)(1-\theta)}{\delta(1-\theta)+2(1-\theta+\theta m)+2t(1-\theta+\theta m)} \right) v. \\
 (b) \quad \psi_2^* &= \left( \theta(1-m) + (1-\theta) \frac{(1-\theta+2\theta m)+2t(1-\theta+\theta m)}{\delta(1-\theta)+2(1-\theta+\theta m)+2t(1-\theta+\theta m)} \right) v \\
 &\quad - \frac{(1-\theta)tv}{(1+t)^2}. \\
 (c) \quad \pi_1^* &= \frac{(1-\theta) \left( \theta m + \frac{(1+\delta)(1-\theta)^2}{(2+2t+\delta)(1-\theta)+2(1+t)\theta m} - \frac{t(1-\theta)}{(1+t)^2} \right) v}{(1+2t)(1-\theta)+2\theta m(1+t)}.
 \end{aligned}$$

다음으로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있는 경우 각 소송인과 대리인 1의 균형 기대보수를 정리하면 보조정리 A.2와 같다.

**보조정리 A2.**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있는 경우 부분게임 완전균형에서 각 소송인의 기대보수( $\psi_1^{**}, \psi_2^{**}$ ) 및 원고 측 변호인의 기대보수( $\pi_1^{**}$ )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a) \quad \psi_1^{**} &= \frac{[3(1-\theta)+\delta(1-\theta+m\theta)+2m\theta-2\sqrt{(2+\delta)(1-\theta)(1-\theta+m\theta)}]v}{1+\delta}. \\
 (b) \quad \psi_2^{**} &= \frac{[1+(1-m)(1+\delta)\theta]v}{2+\delta}. \\
 (c) \quad \pi_1^{**} &= \frac{\sqrt{(2+\delta)(1-\theta)}-\sqrt{1-\theta+\theta m}}{(1+\delta)\sqrt{1-\theta+\theta m}} \\
 &\quad \left( \theta m + (1-\theta) \frac{(\sqrt{(2+\delta)(1-\theta)}+\sqrt{1-\theta+\theta m})^2}{(2+\delta)(1-\theta)-\sqrt{(2+\delta)(1-\theta)(1-\theta+\theta m)}} \right) v \\
 &\quad - \frac{(\sqrt{(2+\delta)(1-\theta)}-\sqrt{1-\theta+\theta m})^2}{2+3\delta+\delta^2} v.
 \end{aligned}$$

## Litigation Contests with Objective Merits of the Case: Unobservable Contingent Fee Contract\*

Pan Sang Kang\*\* · Dongwoo Lee\*\*\*

### Abstract

We study litigation contests under the contingent fee and the legal expenses insurance regimes when (1) there are objective merits of the case and (2) the contingent fee contract is not observable to the rival party. We first show that the contract disclosure results in lower contingent fee, which decreases the total effort level. As a consequence, the litigants' expected payoffs increase whereas the expected payoff of the plaintiff's lawyer decreases. We next provide a condition under which the plaintiff prefers the legal insurance regime over the contingent fee regime. Finally, we demonstrate that the contingent fee regime always induces a lower total effort level than the legal insurance regime.

**Key Words:** objective merits of the case, contingent fee, legal expense insurance, contract information disclosure

**JEL Classification:** D72, K41

---

*Received: July 13, 2020. Revised: Oct. 11, 2020. Accepted: Oct. 30, 2020.*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BK21Plus Program (Future-oriented innovative brain raising type, 21B20130000013)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MOE, Korea)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Also, we are indebted to two anonymous referees for valuable suggestions and comments.

\*\* First Author, Post-Doc Researcher, Department of Economics, BK21Plu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 Phone: +82-2-880-4061, e-mail: vonpansang@g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Economics, Southwestern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555, Liutai Avenue, Wenjiang District, Chengdu, Sichuan, China, 611130, Phone: +86-139-0823-0610, e-mail: dwlee05@gmail.com